

MLB 경기 보면서 “시작 시간이 몇 시지?”에서 막히는 순간, 야구 흐름이 끊기잖아요. 특히 ET(미국 동부시간)로 적혀 있는 MLB 일정은 한국에서 보기엔 숫자가 낯설고, 그 사이에 시간 변환 실수까지 끼면 보던 경기 자체를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mlb중계 볼 때 가장 자주 쓰는 기준, ET를 KST로 바꿀 때 “13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을 확인할 때 어떤 점을 같이 봐야 될 틀리는지 현실 감각으로 정리해 볼게요.

ET 시간, KST로 바꾸는 가장 빠른 계산법 (13시간 기준)

한국 기준(KST)으로 볼 때, 보통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13시간이에요. 즉 MLB 일정에 ET로 표시된 시작 시간을 보고, 그 시간에 13시간을 더하면 대략 KST 시작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MLB 경기 시작이 ET 기준으로 오후 7시라면, KST로는 보통 다음 날 오전 8시쯤으로 계산해요. 이게 왜 “대략”이냐면, 맥락상 시차가 항상 딱 13시간으로 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검증된 정보에서도 “보통 13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정 확인용으로는 13시간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똑같이 붙여서 계산”하려고만 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대신 계산을 한 뒤, 야구중계사이트나 공식 일정에서 최종 시작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이유: 날짜가 넘어간다는 것

시간 변환에서 제일 자주 생기는 실수는 “요일과 날짜”가 밀리는 부분이에요. ET가 오후 늦게 잡히면, KST로 바꿀 때는 한국 날짜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ET가 “오후 9시”라면 KST는 보통 “다음 날 오전”으로 이동하죠. 이러면 달력에서 날짜가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계산은 했는데 경기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서 착각하기도 해요. 야구중계는 보통 시작 직전에 물리기 때문에, 이런 착각은 바로 결제나 접속 타이밍 오류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요. “KST로 바뀌면 아침인지, 오후인지, 그러면 날짜가 넘어가는지”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ET가 저녁대라면 대부분 KST에서도 다음 날로 넘어간다고 보고, 그 감으로 날짜를 잡아두면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보통 13시간’이면 충분할까? 체감상 필요한 마무리 체크

시간 변환을 13시간 기준으로 잡는 건 엄청 편해요. 특히 밤 늦게 경기 찾아보는 날에는, 계산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근데 “보통”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방식은 딱 하나예요.

계산으로 큰 틀을 잡고, 마지막에 공식 일정 표시(또는 신뢰 가능한 중계 채널 정보)로 확인하는 것.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과 중계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KBO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 시간, TV-RADIO, 구장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요. 결국 시간을 맞추는 일은 “계산 + 확인” 조합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Mlb중계든 야구중계든, 시작 시간이 맞아야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MLB 정규시즌 일정 구조를 알면 ‘언제 시즌이냐’ 감이 잡힘

MLB는 2026년 정규시즌이 2026년 3월 25일(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한다고 발표돼 있어요. 그리고 정규시즌은 162경기 체제예요.

이걸 왜 굳이 말하냐면, 야구중계에서 “이번에 MLB가 언제쯤 진행 중이지?” 같은 질문이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요.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과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일정 페이지에서 찾아야 할 기간도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MLB 순위 페이지에서도 디비전시리즈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같은 포스트시즌 구조가 안내돼요. 이런 흐름을 한 번만 알고 있으면, 후반에 갑자기 경기 수와 일정이 달라졌을 때도 “아, 지금 그 단계구나” 하고 대응이 쉬워져요.

결론적으로, ET 변환은 시작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이 언제, 어떤 단계로 넘어갔는지”라는 큰 맥락을 같이 잡으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KBO와 동시에 챙기는 사람에게 시간 변환이 더 민감한 이유

야구를 같이 보는 분들 중에는 KBO와 MLB를 둘 다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야구중계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KBO와 MLB 경기 일정, 시작 시간, 순위, 실시간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ET를 KST로 바꾸는 작업이 더 예민해져요. 왜냐면 KBO는 한국 일정 기준으로 잘 정리된 정보가 많고, MLB는 ET로 표시되니까, 두 리그를 오가며 시간을 비교할 때 “어느 리그는 한국 시간이고 어느 리그는 ET였지?” 같은 혼선이 생기기 쉽거든요.

저는 화면을 두 개로 띄우거나, 최소한 경기 목록을 확인할 때 리그 구분을 먼저 고정해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MLB 목록은 무조건 ET 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KBO 목록은 바로 한국 시간으로 읽는 식이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두면 같은 “시작 시간”이라고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체계를 보고 있다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을 확인할 때, 최소 검증 기준

어떤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경기 시작이 정말 언제냐”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트를 고를 때 공식 일정이란 실제 정보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입니다.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 같은 항목을 제공하고,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과 중계 정보를 제공해요.

여기서 핵심은, 중계 채널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들어가면 시작 시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Mlb중계는 날짜 단위로 새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서, [야구중계](#) 이전에 계산해둔 시작 시간이 실제로는 변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래 같은 흐름으로 확인해요.

1. MLB 일정 페이지에서 해당 경기의 ET 시작 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2. ET 시간에 13시간을 더해 KST 시작의 “대략 감”을 잡는다
3.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표시된 KST 시간(또는 시작 시간 표기)을 한 번 더 대조한다
4. 중계 채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 직전에도 갱신 여부를 본다
5. 경기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넘어가는지 달력 기준으로 한 번 체크한다

이 정도만 해도 “계산은 맞는데 사이트 표기가 달랐다” 같은 황당한 상황을 꽤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 4가지

ET를 KST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실수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돼요. 저는 그중에 아래 같은 것들이 특히 자주 보이더라고요.

1. ET 시작 시간이 저녁인데도 KST를 같은 날짜로 착각한다
2. 계산은 했는데,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표시된 시간이 갱신된 일정인지 확인을 안 한다
3. 리그를 오가며 “이건 KBO야, 이건 MLB야” 구분을 놓친다
4. “13시간”을 맹신해서 마지막 대조를 건너뛰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일정 정보가 섬세하게 움직일 때 생기는 인간적인 오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조를 꼭 넣는 편입니다. 특히 야구는 타이밍이 전부잖아요.

예시로 바로 감 잡아보기 (ET -> KST, 날짜 넘어감 포함)

이제 진짜로 감 잡아볼게요. 숫자 예시는 정확한 경기 일정을 가정하기보다는 변환 방식 이해에 초점을 둘게요.

- ET가 오전 10시라면 KST는 보통 오후 11시쯤이 됩니다. 즉 같은 날 저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 ET가 오후 2시라면 KST는 보통 오후 3시쯤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는 날짜가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 ET가 오후 9시라면 KST는 보통 다음 날 오전 8시쯤으로 가요. 이때는 날짜가 넘어간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서 고정해두는 게 좋아요.

이 감각이 잡히면, 밤에 MLB 일정 훑을 때 시간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아, 이 경기는 한국에서 내일 아침이겠구나”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mlb중계로 볼 때, 시간 말고도 챙기면 좋은 포인트

ET 변환이 맞아도, 그 다음 단계에서 체감이 갈리는 요소가 있어요. 공식 일정에는 중계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야구중계사이트도 보통 채널이나 시청 경로를 안내하죠. 그래도 실제로 시청할 때는 아래 같은 걸 신경 쓰는 편이 좋아요.

첫째, 중계 채널이 실제로 내가 보는 지역과 연결되는지요. 둘째, 시작 시간 전후로 안내가 바뀌는지, 갱신이 빨리 되는지요. 셋째, 경기 진행 중에 타임존 표기나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어떤 화면은 시작 시간만 한국 시간으로 바꾸고, 다른 화면은 그대로 ET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한 시간이 화면과 같아야” 편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 사이트를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검증 기준을 “공식 일정과의 정합성”에 두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시간, 중계 채널, 장소가 제공되는 구조고,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과 ‘어디서 볼지’ 성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삼으면,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판단이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13시간 기준을 “내 일정용 도구”로 쓰는 법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13시간은 계산기처럼 써요. “진짜 확정”은 아니지만, 일정 탐색에서 시간을 빠르게 좁히는 도구요.

- ET로 나온 시간을 보고, KST 대략 시간을 바로 만든다
- 그 다음은 공식 일정이나 신뢰 가능한 표시에서 최종 시작 시간을 확인한다
- 특히 날짜가 넘어가는 타이밍은 달력으로 한 번만 더 본다

이 루틴만 잡으면, mlb중계에서 시간 때문에 놓치는 일이 확 줄어요. 야구는 한 이닝만 늦게 와도 기세가 바뀌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시간을 제대로 잡는 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경기 감상 자체의 만족도를 올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야구중계 보다가 “아, 이거 내일 아침이었네” 하고 뒤늦게 깨닫는 날이 없다면 그게 가장 큰 이득이에요. 13시간 기준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출발점입니다.